

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

- '25.6.23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

◇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

I. 국내

□ 산업계

- 720km 주행거리에 압도적 승차감...디 올 뉴 넥쏘, 수소차 독주 ('25.6.20. 서울경제)
 - 현대차는 2018년 3월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약 7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인 '디 올 넥쏘'의 테크 토크 및 시승회를 진행함
 - 고속주행에도 뛰어난 승차감은 물론 5분 안팎의 짧은 충전만으로 720km에 달하는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기존보다 향상된 150kw급 전동모터를 탑재하여 수소연료전지 스택 출력도 기존 대비 11% 상승함
- "수소 모빌리티 여정 함께"...현대차 넥쏘 러브콜 캠페인 시작 ('25.6.20. 머니투데이)
 - 현대차는 친환경 가치와 수소 모빌리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넥쏘 러브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힘
 -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에게 "CO₂없이 물만 배출하는 수소 모빌리티의 여정에 함께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디 올 뉴 넥쏘'의 여정에 함께할 것을 제안하여 해당 인물에게 화답이 오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
- 아이에스티아-라이트브릿지, 그린수소 프로젝트 공동 대응 MOU 체결 ('25.6.20. 가스신문)
 - (주)아이에스티아와 (주)라이트브릿지가 그린수소 생산과 출하, 충전 시스템 건설 분야의 국내외 수소 프로젝트를 공동 대응하는 내용으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함

- 수소전문기업으로 수소충전소, 수전해시스템 EPC전문기업인 아이에스티와 알칼라인, PEM 등 수전해 스택 전문기업인 라이트브릿지의 업무협약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무인·수소 지게차...들어는 봤나?" HD현대사이트솔루션 '비장의 무기' ('25.6.19. 한국금융)
 - 산업차량으로 분류되는 지게차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미래 사업 분야인 무인지게차, 수소지게차로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음
 - 무인지게차는 지난 2019년 제품 출시를 마쳤고, 현대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수소 지게차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국책과제 실증사업 2단계에 투입돼 내년 3월까지 검증을 마칠 예정임
- 지필로스, '그린수소 전주기 시스템' 구축...친환경 수소시대 열다 ('25.6.20. 에너지신문)
 - 지필로스는 부산광역시 두명터널 관리사무소 부지 내 태양광 패널과 그린수소 생산 P2G(Power to Gas)시스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 야간 시간대 터널 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섹터커플링(P2X)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19일 밝힘
 - 설계단계부터 시공, 운영, 사후관리까지 총괄하며 모든 과정을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했으며, 특히 수소생산 P2G시스템은 국내 첫 공장 제조 상용화에 성공, KGS로부터 수소용품 인증을 받은 100kW PEM(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가 설치됨

□ 기관

- '제주 1호선' 수소트램 철도 추진...우선 사업비만 5,300억 원('25.6.20. JIBS)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1호선' 수소트램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20일 제주 최초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오는 7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하반기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임

II. 해외

□ 글로벌 정책 동향

○ 인도, 그린수소 산업 육성 위해 글로벌 및 국내 투자 촉구

(FuelCellsWorks, 25.6.19)

-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 차관은 'CII 국제 그린수소 비즈니스 컨클레이브'*에서 그린수소 생산·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산업의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
 - * CII 국제 그린수소 비즈니스 컨클레이브: 인도산업연합(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이 주최하는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그린수소 분야에서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 국내 산업계의 협력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개최
- 특히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의 인도 내 그린수소 연구·혁신 협력을 촉구하고, 국내 산업계에도 R&D 투자 확대, 제조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 인력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함
- 인도는 'SIGHT'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그린수소 4.2만 톤과 그린 암모니아 72만 톤의 생산 입찰을 이미 진행 중이며, 분산형 생산 모델과 전국적 수소 운송 회랑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 SIGHT(Strategic Interventions for Green Hydrogen Transition) 프로그램: 인도 정부가 정유 및 비료 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그린수소와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전략적 지원 정책
- 인도는 또한 EU, 일본,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등과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동 인프라 개발, 수소 공급 계약 체결, 인증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연간 600만 톤 그레이수소 수요를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린수소의 높은 생산 단가, 세금(GST) 문제, 장기 계약의 어려움, 그리고 수요 확대 등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

□ 글로벌 산업 동향

○ 美 오클랜드항, NorCAL ZERO 통해 수소트럭 상용 시범운영 착수 (FuelCellsWorks, 25.6.19)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서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소 연료전지 트럭을 활용한 단거리 화물 운송 실증 프로젝트 'NorCAL ZERO'를 본격 운영 중임
- 본 프로젝트는 미국 교통환경센터(CTE)* 주도로 현대자동차(차량 제조), FirstElement Fuel(수소충전소 구축), Air Liquide(수소 공급)가 참여함
- * 미국 교통환경센터(Center for Transportation and the Environment, CTE): 친환경 교통 기술의 실증·보급을 지원하는 미국 비영리 기관
- Air Liquide의 네바다주 액화수소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수소를 공급받아 운영하며, 투입된 트럭은 1회 충전으로 40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하고 충전시간도 짧아 기존 디젤 트럭 대비 탄소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오클랜드 항구 주변 지역의 대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의 확산과 관련 인프라 구축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cf) NorCAL ZERO는 항만 물류 부문에서 수소 기반 친환경 운송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미국 내 타 항만 및 장거리 육상 운송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항만 물류 분야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임



자료: Air Liquide